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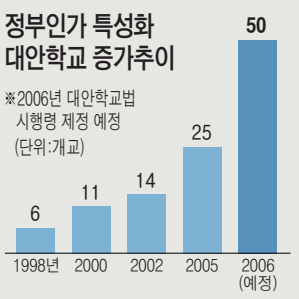
'붕어빵 교육' 가라... 폭발하는 代案학교

공부든 취미든 내 마음대로 전국 100여곳서 '독창 교육'

대안학교인 세인고(전북 완주) 1년 이찬수(16)군은 미술에 폭 빠져 있다. 일반 중학교에 다닐 때 특별한 취미가 없던 이군은 세인고 입학 후 매주 6시간씩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달란트' 시간에 이것저것 해보다 그림에 집중하게 됐다. 미술교사가 특별히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국 규모 청소년 미술대회에서 특선을 했다. 주 최측으로부터 "학원에서 배우면 이런 그림 안나온다. 독창적이다"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군은 현재 컴퓨터학원에서 3차원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있다. 아버지 이준원씨는 "아이 스스로 그림이라는 재능을 발견한 것이 기쁘하다"고 했다.

▶시리즈 A9면
'붕어빵 교육' '획일화된 교육'으로 상징되는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찾는 사람들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대안교육(Alternatives Education)' 기관은 2000년 이후 속도가 빨라지면서 10년도 안된 사이 전국적으로 100여곳(인가, 비인가 포함)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성미산



우수한 학생들도 입학 '문제아 학교' 벗어나 올초 학력인증 法통과

학교 교장)는 "입시교육에만 매달리는 학교에 염증을 느끼며 '내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건 자연스런 일"이라고 했다.

"대안학교=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학생을 위한 기관"이란 등식도 깨지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 일반 학생들도 '개성있는 교육'을 찾아 대안학교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안학교인 대구 달구벌고교 2학년 이정민(17)군도 중학교 때 전국 10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고

교 진학을 앞둔 중3 학기말 무렵, 이군의 아버지는 "대안학교에 가 보면 어떻게"하고 권했다. 숨막히게 공부해야 하는 인문계 고교 현실을 떠올리던 이군도 동의했다. 이군은 "자기 시간표를 만들어 생활한다. 공부하고 싶으면 늦게까지 심화학습하고, 고민 있으면 밤에 선생님과 산책하며 얘기를 나눈다"고 했다. 이군은 대학에서 영상을 전공할 계획이다.

이우학교, 간디학교(경남 산청), 한빛학교, 달구벌학교 등 인기있는 대안학교는 입학경쟁률이 5대1이 넘는다. 고학력, 전문직 부모들의 참여가 늘면서 농촌 지역을 벗어난 '도심형 대안학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의 이우학교, 서울 마포 성미산학교, 대구 달구벌학교가 대표적이다. 중·고교에서 시작되었으나 산 어린이학교(경기 시흥), 푸른숲학교(경기 하남) 등의 대안 초등학교도 이미 10여곳에 이른다.

이처럼 대안교육기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이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법안도 올 초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26곳인 학력인증 학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盧大統領, 97년 대선자금 수사 반대



中·러 연합훈련 3단계 중·러 연합군사훈련이 제3단계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24일 중국 상해항에 도착한 중국 해군 상륙함에서 내린 수륙양용차량들이 육지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 지난 18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병력 1만여명과 첨단 무기가 대거 동원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P통신

“이회창·김대중씨 또 조사하는 것은 너무 야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검찰의 옛 안기부 도청 테이프 수사가 1997년 대선 때의 이회창(李會昌), 김대중(金大中) 후보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A4면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테이프가 하나 나와...또 무슨 이회창 후보가 97년 세풍사건으로 조사받고 지난번에 또 조사받았다”면서 “또 조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는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물어버릴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해야지 끊임없

이 반복하고 몰고 늘어질 일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2002년(대선) 것은 살아있다 치고 97년 것 가지고 왕년의 후보들을 다시 불러내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가지만 딱 조사해서 1000가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청 테이프는 삼성그룹이 당시 이회창 후보측 등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이 핵심 내용이라서 이 후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삼성에 대한 수사도 않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신정목기자 (블로그)jshin.chosun.com

현대車 11년 연속 파업

오늘 2시간 부분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11년 연속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87년 노조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해(94년)만 빼고 매년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3일 저녁 파업찬반 투표를 열어 전체 조합원 4만2521명 중 3만9098명이 투표에 참가, 그중 70.86%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25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26일엔 민주노총의 6시간 부분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해외공장 이전시 노조와 협의

할 것 ▲임금삭감없는 20%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지난 2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최우석기자 (블로그)wschoi.chosun.com



八面鋒

오늘 盧大統領 임기 후반기 시작하는 날. “아직도 半이나...” 국민들에게 희망 주길.

○ 정부 저출산 대책 쏟아내도 직장 여성들 “달라진 게 있나요” 반문. 구호와民心이따로 노는 二重奏.

○ 미래학자들 35년 내 ‘일부일처제’ 사라질 것으로 예측, 그림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 중 어느쪽?

“검찰도 95년부터 휴대전화 감청”

千법무 밝혀... “99년 디지털 감청기도 구입 시도”

법무부가 지난 98년 국회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서에서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하며 ‘디지털 휴대폰 감청기’ 구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설명과 달리 이미 98년중부터 디지털 휴대폰에 대한 감청계획이 준비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이날 초 “99년 12월에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이날 공개한 법무부의 99년 예산 명세서에는 디지털휴대폰 감청기(1대) 구입비용 25만달러가 명시돼 있다.

권 의원은 이날 “당시 검찰이 아날로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당시 미국에서 감청 장비가 개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산을 신청했으나, 이후 그 장비가 엉터리라는 말을 듣고 구입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한편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은 이날 “대검이 95년 3월 미국산 휴대전화 감청기를 구입하는 등 98년까지 총 8대의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기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기를 구입해 사용했다는 시점(96년)보다 9개월 이상 빠른 것이며,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99년 법무부 발표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배성규기자 (블로그)ivegaa.chosun.com

김봉기기자 (블로그)knight.chosun.com

발행면수 A32·B16·D12

‘강남 8학군 재조정’... 집값 전망

▶B1면

<광고>

용평 관리지역내 토지 공개매각

영농조합법인 유기원은 강원도 평창 용산리 일대 관리지역 토지(현황 전)를 공개 매각한다. 이 지역은국내 최대 규모의 용평리조트가 위치해 있고, 강원개발공사가 내년 4월부터 착공하는 알펜시아(사계절 관광휴양단지) 150만평 부지와 인접해 있다. 평창은 정부의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구 확정과 관광관련 기업 이전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지가상승률이 높다. 유기원은 토지 매입자가 전원주택 등으로 개발하기 전까지

농지로 관리하여 계절별 농산물을 지급하며, 펜션 및 부대시설 이용, 영농체험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전 분양필지가 6m도로에 인접하며, 등기시까지 대한토지신탁에서 자금관리한다. 300평 단위로 선착순 수의계약하며 분양금액은 평당 33만원이다. <마감일박·신청금 100만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581201-01-219516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분양문의 : (02)544-3800
조합사무실: (033)336-6201

양평TPC골프장 회원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알림

대지개발 주식회사가 양평TPC골프장의 사업권에 관해 양수도계약을 맺은 것은 무효이고, 위 골프장의 창립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선고

2005. 7. 28. 서울고등법원은 '2004나65987 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사건에서 "주식회사 사내산개발과 대지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1999. 11. 26 체결된 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권(골프장사업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4나65994 회원모집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대지개발 주식회사는 양평TPC골프장 창립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대지개발 주식회사의 골프장 사업권 양수계약은 무효이다

1999. 11. 26. 주식회사 사내산개발은 동원파이낸스로부터 175억5천만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동원파이낸스의 방계회사로 설립된 대지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위 골프장사업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위 대출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위 골프장사업권 양수도계약은 무효인 것(골프장사업권 양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골프장사업권자를 대지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한 경기도지사의 행정 처분은 잘못이다

2003. 5.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완성 전의 필수시설인 골프장부지 등의 소유권이 경락으로 사업계획승인권과 분리된 경우 그 낙찰자는 사업계획승인권을 별개의 계약을 통해서만 승계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원칙적으로 무효인 위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골프장사업권의 양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골프장사업권자를 대지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내린 것은 하자 있는 행정 처분으로 철회·취소되어야 합니다(동 취지임).

3. 대지개발 주식회사는 위 골프장의 적법한 사업권자가 아니므로 회원모집을 금지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골프장사업 계획승인을 얻은 자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개발 주식회사는 위 판결에 의해 위 골프장의 적법한 사업권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골프장의 회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평TPC골프장 회원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사내산개발은 당사의 권리를 보전함과 더불어 위 골프장회원으로 가입한 분들과 새로이 위 골프장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대지개발 주식회사는 위 양평TPC골프장의 적법한 사업권자가 아니므로,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지개발 주식회사가 향후 위 골프장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물론, 이미 회원을 모집한 행위까지 위법한 행위로서 (전자는 위 가처분 판결에 저촉되어) 무효로 될 것입니다.
- 대지개발 주식회사가 비록 위 골프장부지를 225억원에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종전 사업권자인 영아트개발(주)이 승인 받은 투자비(65억원)와 주식회사 사내산개발이 투입한 공사비 80억원까지 승계받은 바는 없습니다(골프장사업권의 양수 없음은 그 승계가 불가능함). 따라서 대지개발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위 765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서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골프장부지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하는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대지개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사내산개발로부터 골프장사업권을 적법하게 승계받지 않고는 달리 위 골프장사업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원모집은 물론 영입행위조차 할 수 없습니다.
- 대지개발 주식회사는 위 판결 후에도 위 골프장의 회원모집 광고를 하고 골프장을 임시개장하여 영입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개발 주식회사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사내산개발은 사업계획승인권자 변경처분취소 조치, 영입금지가처분 신청, 수백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예정입니다.
- 대지개발 주식회사는 위 골프장부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610억5천만원의 저당권설정을 하여 대출받은 자금과 위법한 행위로 수백억원 상당의 회원권분양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성했지만, 현재까지 위 골프장의 사업부지 경락대금 225억원과 추가공사비 등으로 3~400억원 정도를 투입했을 뿐입니다. 대지개발 주식회사는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당사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5. 8. 주식회사 사내산개발 대표이사 송 동 환